중남미지역학 학사학위논문

라틴아메리카의 악마춤 : 원주민의 분노
오루로(Oruro), 뿌노(Puno)와 라 띠라나(La tirana) 축제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안 태 환

2014년 11월

부산 외국어 대학교

중남미비즈니스 연계전공

김 대 원

라틴아메리카의 악마춤 : 원주민의 분노
오루로(Oruro), 뿌노(Puno)와 라 띠라나(La tirana) 축제를 중심으로

20110715 스페인어과(김대원)

Ⅰ. 들어가는말
Ⅱ. 오루로(Oruro) 축제 : 볼리비아
Ⅲ. 뿌노(Puno) 축제 : 페루
Ⅳ 라 띠라나(La tirana) 축제 : 칠레
Ⅴ. 라틴아메리카의 악마춤
Ⅵ. 결론

Ⅰ. 들어가는말

라틴 아메리카인들은 유럽인들의 정복과 함께 유럽인들이 만들어낸 속박 속에서 독립전쟁과 혁명 등 온 몸으로 역사를 만들며 지금까지도 그들만의 문화와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길을 찾아 왔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라틴아메리카의 축제는 끊임없이 새로움을 창조하는 역동의 장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의 한 측면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축제는 하나의 의례이라기보다 일상 그 자체라고 본다. 특히 또한 식민지 사회 이전의 원주민의 문화적 전통과 유럽의 천주교 문화가 결합되어 나타난 축제들이 많다. 멕시코 중부지역의 우에야판(Hueyapan)의 사례를 보면 축제의 전통은 유럽의 영향을 받아서 식민시대에 확립된 것이라고 한다[1].

1) 라틴아메리카의 교회에는 또다른 얼굴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토착화된 가톨릭교이다. 인디오나 흑인노예들의 전통적 믿음과 의식이 가톨릭 신앙과 혼합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가톨릭의 성인들이 안데스의 신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자리하고 있다고 상상하면 될것이다. 흑인 노예들이 간직해 오던 아프리카의 토착 신앙과 가톨릭이 어우러진 아이티의 부두(Vudú)나 쿠바의 산떼리아(Santería) 그리고 브라질의 깐돔블레 등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곽재성, 2000, 248-249)

> 오늘날 외부인들에게는 이색적이거나 원주민 사회의 특징을 반영한 것 같은 요소가 있지만, 이런 소위 원주민의 관습도 유럽의 영향을 받아 유럽에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바뀌었다(Friedlander 1975, 104-105). 그런 이유 때문에 라틴아메리카의 축제는 종교와 많은 관련이 있다. 이런 현상은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천주교의 축제가 원주민의 토속적인 문화전통을 포함하게 된 것은 라틴아메리카의 천주교가 유럽의 그것과는 달리 원주민들의 민간신앙과 융합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주종택 2004, 131).

과연 주종택의 의견처럼 천주교의 입장에서는 그러할 수 있다. 하지만 원주민의 시각에서 반대로 토속적인 문화전통이 천주교의 축제를 포함하게 된 것이 원주민들의 민간신앙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살펴본다.

주종택(2004, 134)에 따르면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기본적인 축제의 의미와 성격은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이 지역에서는 축제가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널리 퍼져 있다. 예를 들면,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축제에 관련된 여러 의무를 많이 수행한 사람은 높은 위신을 얻었고 공동체의 구성원들로부터 원로로 인정받아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Cancian 1965; harris 1964, 26; Stephen 1991, 164; Vogt 1990). 즉 식민시대 이전부터 축제가 일상화되어 다른 지역에 비해 다양한 형태의 축제가 빈번하게 열리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2]. 지금도 매주일 어느 지역에서나 아름답게 장식을 한 행진과 더불어 춤과 음악이 곁들여진 축제를 볼 수 있다. 각 국가와 지역마다 이처럼 화려하고 풍성한 축제를 많이 벌여서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인다. 라틴 아메리카의 축제는 종류만 다양한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사람들의 행위도 훨씬 적극적이고 격렬하다. 예를 들면 어떤 축제에서는 질서라는 개념이 사라진다. 혼란 속에서 거의 모든 것이 축제에서는 허용된다.

기존의 계급이나 성의 틀이 무시되고 여러 제도나 권력층이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규칙이나 관습이 위반되기도 한다.

> 축제는 지나간 황금 시대에는 민중 전체에게 속해 있던, 세계를 향한 특출한 마음가짐이다. 그것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 세계를 지향하며, 세계와 개인을, 개인과 다른 인간들을 변화의 기쁨과 흥겨운 상호 의존성으로 밀착시켜 모두를 **해방**된 친밀의 영역에서 하나가 되도록 한다. 축제는 두려움이 잉태한 교조적이고 진화/변화에 적대적이며 생존의 주어진 조건과 사회 질서를 절대화하는, 일방적이고 공식적인 음울한 진지함에 저항한다. 축제적 태도는 바로 이러한 진지함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킨다(바흐친, 1995, 190-191, 강조는 필자).

2) 주종택(2004, 135)

앞으로 나오게 될 이 글에서 해방의 궁극적인 의미는 악마의 모습으로 춤에서 춤으로, 마음의 근심을 몰아낸다는 뜻이다. 그 중에서도 안데스 지역에서 널리 행해지고 추는 디아블라다라는 악마춤이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 새로운 세계를 지향하며 식민지 정복으로부터 자신들의 문화를 지켜내기 위한 아이마라 원주민들의 분노가 나타난다. 다른 측면에서는 축제를 통해 모든 이질적인 것이 일시적으로 통합되기도 한다. 참가하는 사람들의 흥을 부추기려고 축제 때에는 여러 가지의 악기와 장비들을 사용하면서 매우 소란하게 진행되고 때로는 다툼이 일어나거나 분쟁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런 모든 문제들도 축제에 포함되는데 그것은 멕시코인을 포함한 라틴 아메리카의 사람들은 “축제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고독을 탈피하고 자신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Wolf and Hansen 1972, 115-116)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축제는 멕시코인이나 다른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에게 중요한 카타르시스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겠다. 앞으로 얘기하게 될 아이마라족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안데스 지역에서도 원주민의 종교행위가 천주교의 특징과 함께 존재한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원주민의 신앙과 천주교에 의해 꾸준히 지속되어 왔던 축제는 유럽으로부터의 독립과 함께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고 원주민들은 축제를 맞이해서 하던 일을 중단하고 특별한 의상과 장식을 준비해서 평상시 먹지 않던 음식도 먹는다. 그리고 다양한 춤들도 전해져 오고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남미 대륙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란 말이다. 필자는 그 춤들 중 안데스 지역의 볼리비아, 페루, 칠레 등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져 오고 축제들 속에서 두드러지게 발견되는 디아블라다(Diablada)라는 춤에 흥미가 생겼다.

디아블라다는 악마 춤이라는 뜻이며 남성명사로는 디아블로(Diablo), 여성명사로는 디아블라다(Diablada)라고 쓰인다. 또한 이 악마의 춤은 스페인에서 온 성찬 신비극[3](auto sacramental)이 아이마라 원주민 문화와 섞이면서 형성된 것이다(정승희 2009). 그 근거는 기독교적 요소와 중세 신비극 요소가 결합된 엔뜨라다(entrada)라는 행렬에서 찾을 수 있다. 엔뜨라다(entrada)라는 행렬에서 춤은 여러 악마들이 선을 상징하는 성 미카일 천사와 싸우는 것을 형상화한다. 악마는 인간을 상징하는 한 여자(치나 수빠이-china supay)를 유혹하려 하지만, 성 미카엘이 개입하여 그들을 붙잡는다. 악의 우두머리는 루스벨이며, 악의 편에는 여러 부차적인 인물들이 나온다. 마지막에는 위엄과 힘을 갖춘 성 미카엘이 한 젊은 여자, 즉 성모로 바뀌고, 악이 패배한 다음 악마들과 그들의 부인들은 성모를 추앙하기 시작한다.

강성식(2011, 8-9)에 의하면 오늘날의 볼리비아에 해당하는 알또 페루(Alto Perú) 안데스 지역의 오루로 축제에서는 ‘악마의 춤(Diablada)’이 전해오고 뽀또시 광산에서는 지금도 띠오(Tío)라는 악마의 형상의 신을 숭배하고 있다.

3) 신비극과 유사한 성극(Auto)은 주세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16세기 스페인에서 널리 창작되었고 무대에 올려졌던 연극 장르로 성사, 그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성찬식에 관련된 짧은 알레고리 종교극을 일컫는다. 타 유럽에서는 이 장르를 포함한 종교극 일반이 쇠퇴하기 시작하고 세속극이 연극계의 주류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시기에, 스페인에서는 세속극의 전면적인 등장과 더불어 성극 역시 17세기 바로크시기에 성찬성극(Auto Sacramental)으로 찬란하게 꽃피우게 된다. 이런 현상은 스페인만의 독특한 현상으로 당시 스페인이 그 만큼 종교성이 강하던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1-1] 라틴아메리카 축제 지역

오루로 축제는 브라질리오의 카니발, 페루 쿠스코의 인티 라이미 축제와 더불어, 남미 3대 축제의 하나이다. 1년 내내 산속에서 광산을 캐는 노동들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다. 2~3월의 '회색 수요일(사순절)' 전주에 행해지는 축제야말로 그들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축제일에는 그날을 위해 준비한 화려한 의상을 입고 금은으로 번쩍이는 가면 마스카라(Mas-Cara)를 쓴다. 남자들은 무거운 의상과 가면 속 의 답답함을 견디면서 8일 동안이나 술의 힘을 빌어 춤을 춘다. 오루로 축제에서는 '악마의 춤(La Diablda)'이 특히 유명하다. 금은보석을 박은 용 의 머리처럼 보이는 가면을 쓰고 광철 수호신 성모 소카본(Virgen del Socavon)을 받드는 디아블라다를 계속 춘다. 마찬가지로 볼리비아 오루로(Oruro) 축제 외에도 페루의 뿌노(Puno) 축제, 칠레의 라 띠라나 축제 등 아이마라 원주민 문화가 바탕으로 자리잡고 있는 곳에서 전승, 유지되고 있다.

3개의 축제 중 이 독특한 악마 춤이 원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받았고, 그 당시 악마춤이 어떤 근거로 생기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볼리비아의 오루로 축제, 페루의 뿌노 축제, 칠레의 라 띠라나 축제들을 통해서 등장하는 악마의 춤 물론이거니와 3개의 축제에서 공통으로 드러나는 천주교의 종교적인 현상이 악마의 춤과 대비되게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다. 마지막에는 축제 속

에 나오는 광부들의 삶을 통해서 식민지 시대를 겪었던 원주민들의 슬픔과 애환이 이 악마춤으로 승화되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다. 이를 바탕으로 본인은 아이마라 원주민들로부터 기원이 된 디아블라다라는 악마춤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역사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한다.

Ⅱ. 오루로(Oruro) 축제 : 볼리비아

오루로는 해발 약 3,700미터에 위치해 있으며, 은광이 발견되면서 1606년 스페인인들이 세운 광산도시이다. 수도 라파스에서 약 230km 떨어져 있고, 첩첩산중에 있는 포토시와는 달리 알띠쁠라노와 산이 만나는 지점에 있어서 버스로 서너 시간이면 갈 수 있다.

이 척박한 작은 도시를 볼리비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로 만든 것이 바로 축제이다. 축제 기간 중에는 인구 20만에 불과한 오루로에 수만 명의 외지인들이 북적거린다. 덕분에 축제의 마지막 3박 4일 동안에는 단 하루를 묵고 싶어도 3일치 숙박비를 내야할 정도로 숙소를 잡기 힘들다. 오루로 축제는 동정녀 소까본(Virgen del Socavon)을 기리는 축제이다. '소까본'은 '갱도'를 뜻한다. 가톨릭의 성모이면서 동시에 광부들의 수호 성모임을 짐작할 수 있다. 오루로 축제는 오늘날처럼 동정녀 소까본을 섬기게 된 것과 관련하여 두 가지 전설이 내려온다. 다만 두 전설 모두 동정녀 소까본이 아니라 동정녀 깐델라리아(Virgen de la Candelaria)를 언급하고 있다. 그 하나는 다음과 같다. 1789년 혹은 1792년에 삐에 데 가요(Pie de Gallo) 광산의 한 폐 갱도에 살던 치루-치루라는 도둑이 도둑질을 하던 중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는데 어느 인정 많은 여인의 도움으로 자신이 기거하던 굴로 돌아올 수 있었다. 다음날 광부들이 그의 시체를 발견하는데 뜻밖에도 그의 침대 머리맡에는 안데스에서 널리 숭배되던 동정녀 깐델라리아의 상이 있었다. 광부들은 동정녀 깐델라리아의 축일인 2월 2일에 동정녀를 기리는 의식을 거행하고자 했으나, 당시 평일 중에서는 유일하게 휴식이 허락된 축제 기간에 그녀를 섬기게 되었다고 한다.

또 다른 전설 역시 도둑과 관계가 있다. 니나 니나 혹은 치루-치루라는 이름의 이 도둑은 일종의 의적이었는데 부유한 상인의 딸 로렌사와 사랑에 빠지면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 그러나 로렌사의 아버지가 그의 정체를 알고 결혼을 반대하자, 두 연인은 도망을 친다. 도망을 치던 중 여인의 아버지와 맞닥뜨려 도둑이 치명상을 입자, 검은 옷을 입은 여인이 그를 오루로 병원으로 인도하고 사라진다. 도둑은 사경을 헤매면서도 자신이 부상을 입었을 때 동정녀 깐델라리아에게 구원을 요청했으며, 오래 전부터 매주 토요일 시끼사미 동굴의 동정녀 깐델라리아 상에 촛불을 봉헌했다고 말한다. 이후 이 동굴이 경당으로 변했고 1891년 그 자리에 성당을 세웠다고 한다.

사실 동정녀 깐델라리아 신앙은 페루, 볼리비아, 칠레,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등 여

러 지역에 퍼져 있었다. 페루에서는 띠띠까까 호수 연변의 뿌노에서 오늘날까지도 성대한 의식이 거행되어 이 도시에 페루 민속의 수도라는 별명을 안겨주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오루로 같은 광산 지역에 이 신앙이 퍼진 것은 동정녀 깐델라리아가 왼손으로는 아기예수를 안고 오른손으로는 촛불을 들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는 아기예수가 세상에 빛을 가져다준 존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광부들에게 촛불은 어두운 갱도를 밝혀주는 빛이기도 하다. 그래서 촛불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한 광부들의 마음이 저절로 동정녀 깐델라리아 숭배로 연결된 것 같다. 이 성모가 아기예수를 안고 있다는 점은 동정녀 깐델라리아가 곧 성모마리아임을 시사한다. '동정녀 소까본'이라는 이름은 오루로가 광산지대이다 보니 동정녀 깐델라리아를 특별히 그렇게 부른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소까본 성당에 모셔진 동정녀 소까본의 성화도 동정녀 깐델라리아와 동일한 모습이다. 어쨌든 동정녀 소까본 신앙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가톨릭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동정녀 소까본이 원주민들을 개종시키려고 출현하였다고 말하는 전설까지 존재할 정도이다. 원주민들이 개종하자 그들의 옛 신들이 노하여 도마뱀, 전갈, 개미 등을 차례로 보내 그들을 괴롭혔으며, 이에 다시 동정녀가 나타나 치열한 전투 끝에 이들을 물리치고 개종한 원주민들을 지켜주었다고 한다.

속을 들여다보면 동정녀 소까본 신앙[4]은 안데스의 토착신앙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잉카 시대 이전에 안데스에서 널리 숭상되었던 와리(Huari) 신이 어느 날 우루-우루 족이 태양신을 섬기는 것을 보고 노하여 뱀과 거대한 개구리와 괴물 도마뱀을 차례로 보내고, 괴물 도마뱀의 입에서는 수백만 마리의 개미떼가 쏟아져 나오기도 하지만 어느 뉴스따(ñusta, '공주'라는 의미)가 출현해 이를 모두 제압하고 도마뱀 머리에 십자가를 꽂았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토착신앙과 가톨릭이 결합되어 있는 이 전설은 동정녀 소까본이 물리쳤다는 것과 유사한 생물체가 언급되어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그밖에도 원주민들이 동정녀 소까본과 대지의 여신 빠차마마[5]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오루로 축제도 안데스의 수많은 의식이나 축제와 마찬가지로 안데스 토착종교를 가톨릭 형식에 맞춰 적절히 변화, 보존하고 있는 셈이다.

보통 2월 달에 열리는 오루로 축제를 위해 이미 그 전 해 11월경부터 준비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된다. 이때는 어느 팀이 어느 주제를 가지고 참가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오루로 광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저마다 그룹을 만들어 참가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외부 팀들에게도 참가가 허락되고 있고 반드시 광업과

4) Thérèse Bouysse-Cassagne, "Las minas del centro-sur andino, los cultos prehispánicos y los cultos cristianos", 2005, pp. 450-455

5) 안데스 고원지대에서 성모 마리아는 '어머니'이다. 땅과 시간도 '어머니'이다.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함께 드시자고 권하지 않으면 빠차마마(케추아어로 '땅이고 어머니'라는 뜻. 잉카 신화에서 빠차마마는 생명의 여신이며 태양신 인티의 아내이다)는 화를 낸다. 몹시 목이 마를 때에는 그릇을 깨뜨려 마실 것을 쏟아버리는 일도 있다. 태어난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 태반을 꽃과 함께 땅에 묻어 빠차마마에게 바친다. 사랑을 위해서 연인들은 자신들의 머리칼을 잘라 한데 묶어서 땅에 묻는다. 빠차마마는 지치고 망가진 인간을 가슴에 안는다. 당신 품에서 태어났으므로 여정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은 두 팔을 벌려 품어주는 것이다. 죽은자들은 땅 밑에서 파차마마를 꽃으로 피워낸다(Eduardo hughes galeano, 『불의기억 2』, p. 48)

[그림1-2] 1950년대 볼리비아의 악마춤

관련된 주제만을 다루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각 팀은 최소한 몇 달 전부터 일요일마다 축제 연습을 한다. 다른 나라, 다른 지역 축제는 보통 2-4일에 걸쳐 열리지만 오루로 축제는 8일간 계속된다. 게다가 식전 행사나 전야제까지 합치면 10일에 걸쳐 열리는 셈이다. 축제 기간 중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데 토요일에 열리는 개막식은 모든 팀이 광산지대에서 출발하여 시내를 통과하고 소까본 성당까지 이르는 4킬로미터 내외의 길을 서너 시간 동안 춤추며 행진한다. 해마다 50-60개 내외의 팀이 참가하며, 춤꾼만 2-3만 명에 달하고, 이들과 같이 행진하는 연주자도 1만 명은 너끈히 된다.

이 인원이 모두 행진을 마치려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걸리기 마련이다. 행진을 구경하기 가장 좋은 장소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2월10일 광장(Plaza 10 de Febrero)이나 소까본 성당 앞이다. 2월10일 광장에는 심사위원들이 있어서 참가자들이 신명을 다하고 성당 앞에서는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하기 때문이다. 두 장소 모두 제법 널찍한 도로 내지 광장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참가자들의 공연을 원활하게 한다. 문제는 편히 관람을 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오루로처럼 작은 도시가 시내에 수만 명의 외지인을 수용하자니 간이 스탠드를 만들어 놓고 다닥다닥 붙어 앉게 만들 수밖에 없다. 물론 오루로에 연고가 있거나 돈이 있는 사람들은 2층 발코니가 있는 건물을 하루 빌려서 편안히 볼 수 있지만 말이다.

오루로 축제를 수놓은 수많은 춤 중에서도 디아블라다(La diablada)라고 부르는 악마의 춤이 백미로 꼽힌다. 오루로 축제는 선악의 대립적 구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정녀 소까본에 맞서는 악마들도 축제의 또 다른 주역으로 각광받는다. 더구나 악마들은 광부들에게는 경외의 대상이요 동반자인 띠오(tio, 광부들이 숭상하는 일종의 악마 상)의 현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역일 수밖에 없다[6]. 어떻게 보면 동정녀 소까본과 악마들의 대립이 절대선과 절대악의 갈등이 아니라 일종의 유희일 수도 있

6) 우석균, 2008,『잉카In 안데스』- 오루로 카니발 서울 : 랜덤하우스,2008)에서 인용하였다.

는 것이다. 어쨌든 디아블라다에 등장하는 탈은 다른 춤에 사용되는 탈보다 다채롭다. 동정녀 소까본 전설에 나오는 뱀, 개구리, 도마뱀, 개미 등을 악마로 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무한한 상상력이 가미되고 있다.

디아블라다 외에도 오루로 축제에서는 다양한 춤을 볼 수 있다. 가령, 잉카(Los incas)는 잉카의 마지막 왕 아따왈빠가 포로가 되어 처형당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아따왈빠의 죽음은 식민시대에 연극으로 만들어져 안데스 지방에서 널리 상연되었는데 바로 이 춤이 이 역사적.예술적 전통을 이어받은 셈이다. 흑인 노예들과 관련된 춤도 있다. 카리브 해나 브라질도 아니고 안데스 첩첩산중에서 벌어지는 축제에 흑인들과 관련된 춤이 끼어있다는 것이 의아하게 생각되겠지만, 1611년 통계를 보면 뽀또시 전체 인구 114,000명 중에서 아프리카 계(흑인과 물라토)가 무려 6,000명에 달하고 있다. 원주민 노동력의 감소를 어떻게든 메워야 했기 때문이다. 흑인들 역시 대부분 비참한 생활을 해야 했지만 이들 중 일부는 마름이나 광산 십장 역할을 해서 원주민들의 원성을 한몸에 받기도 했다. 모레나다(Morenada)가 흑인 노예들의 춤이라면 까뽀랄(Los caporales)은 마름과 십장들의 춤이다. 그런가하면 안데스 동쪽 사면에 위치한 아마존 종족들의 기억도 오루로 축제에 남아 있다. 또바(Los tobas)라는 춤이 그것이다. 잉카인들이 야만인이라고 멸시하면서도 내심 두려워했다던 아마존 종족에 대한 기억이 대대로 전해지다가 오루로 축제의 레퍼토리 중 하나로 정착한 것이다.

오루로 축제는 색채의 향연이요 디자인의 향연이다. 의상과 탈의 색상이나 디자인이 기이하고 화려하기 짝이 없다. 마치 중세 기사의 갑옷처럼 온몸을 완벽하게 감싸고 반짝거리는 장신구를 잔뜩 단 의상들이 특히 눈길을 끈다. 이런 의상은 가격이 2,000-3,000달러에 달한다. 재료값도 재료값이지만 일일이 수작업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화려하고 강렬한 색상의 의상을 걸친 참가자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는 와중에 간간히 터뜨리는 오색 연막탄은 그야말로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오루로 축제는 또한 소리의 향연이기도 하다. 거의 모든 팀이 브라스밴드와 함께 행진을 벌이는데 특히 금관악기들은 귀청을 울리는 소리를 내는 것이 미덕이다. 조그만 기타처럼 생긴 악기인 차랑고처럼 아르마디요의 등껍질로 만드는 마뜨라까는 수시로 드르륵드르륵 소리를 낸다. 태엽을 감듯이 소리를 내기도 하고 휘휘 돌리기도 하면서. 이는 노예들의 쇠사슬 소리를 재현한 것이라는 설이 있지만 전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마뜨라까를 많이 사용하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식민시대에 노예로 살았던 기억이 오루로 축제의 중요한 모티브 중 하나라는 사실은 여러 가지 소리를 통해 증명된다. 노예들의 쩔걱거리는 쇠사슬 소리, 십장과 마름의 채찍 소리 및 이들이 장화에 매단 방울들의 쩔렁거리는 소리 등이 그 아픈 기억을 되살리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소리에다가 참가자들의 노래 소리와 추임새까지 더해지니 마치 소리의 고문을 당하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원주민과 촐로[7]들은 악몽과

7) Cholo(촐로)는 인종적 구분으로는 원주민이지만 더 이상 농촌에서 원주민 고유의 문화를 고수하며 살아가지 않는, 도시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을 일컫는 말이다. 원주민 고유의 문화를 보존하는 원주민드릐 입장에서 더 이상 '순수한' 원주민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비하의 의미를 담아 주로 도시에

분노와 슬픔과 절망을 그렇게 한꺼번에 다 토해냄으로써 고단한 삶을 날려버리기를 원한다.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기에 그 빈곤한 땅에서도 오루로 축제처럼 질펀한 여흥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림1-3] 오루로 축제의 악마춤

Ⅲ. 뿌노(Puno) 축제 : 페루

푸노는 페루의 남부지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 약 4,000미터에 있는 고산도시이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티티카카 호수가 있는 지역이며, 수도인 리마로부터 육로를 이용하면 약 22시간이 소요되고, 비행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인접 도시 홀리아카(Juliaca) 공항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거주하는 원주민들을 부르는 용어이지만 톨레도 대통령이 2000년 대선에서 Chino vs. Cholo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스스로를 Cholo로 지칭하면서 비하적인 의미가 희석되었다.(Lee 2011, 54).

[그림1-4] 뿌노의 악마춤

페루에는 동정녀 깐델라리아(Virgen de la Candelraria)를 기리는 푸노 대축제가 있다. 볼리비아의 '오루로'와 페루 '푸노'의 축제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은 그 이름뿐이다. 오루로는 동정녀 소까본(Virgen del Socavon)을, 그리고 푸노는 동정녀 깐델라리아를 기린다. 이름은 달라도 두 인물은 똑같은 동정녀다. 동정녀 깐델라리아든, 동정녀 소까본이든, 이 종교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가톨릭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동정녀 깐델라리아가 나타나 원주민들을 개종시키자 그들의 옛 신들이 노하여 도마뱀, 전갈, 개미 등을 차례로 보내 그들을 괴롭혔으며, 이에 다시 동정녀가 나타나 치열한 전투 끝에 이들을 물리치고 가톨릭으로 개종한 원주민들을 지켜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정녀 깐델라리아 신앙은 스페인 침략군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안데스의 토착 신앙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잉카 시대 이전에 안데스에서 널리 숭배되던 와리(Huari) 신이 어느 날 우루-우루 족이 태양신을 섬기는 것을 보고 노하여 뱀과 거대한 개구리와 괴물 도마뱀을 차례로 보내 괴롭히지만, 어떤 공주가 출현하여 이를 진압하고 도마뱀 머리에 십자가를 꽂았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결국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토착 종교의 전설을 가톨릭에 접목시키기 위하여 가톨릭의 성모마리아와 비슷한 형태의 동정녀 깐델라리아를 끌여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에 대한 이해로 스페인의 성모 신앙이 중남미로 그대로 옮겨져 과달루뻬 성모 신앙으로 발현된 것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김은중(2005, 44-48)에 따르면 식민 초기 중남미 사회를 구성하던 계급들이 저마다 자신들의 역사적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할 때 과달루뻬 성모는 그들에게 정치적 통합이나 종교적 통합이 아닌 문화적 통합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메소아메리카인들의 대지모인 또난친(Tonantzin)을 모셨던 떼뻬약(Tepeyac) 동산에서 가무잡잡한 얼굴로 발현한 과달루뻬 성모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상상력을 사로 잡았다. 과달루뻬 성모는 정복당한

원주민들, 정복자인 스페인 사람들의 후손(끄리오요criollo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스페인 본토인들과 구별되었던)들, 스페인 사람과 원주민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후손(메스티소, mestizo)들 모두들 자신의 품속으로 끌어안았다. 즉, 원주민을 포함해 저마다 자신들의 역사적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토착 종교나 신앙, 전설이 성모의 형태로 발현되어 나타난 것이다.

어떻든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푸노의 대축제도 주변 안데스의 많은 의식이나 축제와 마찬가지로 안데스의 토착종교를 가톨릭 형식에 맞춰 변화, 보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축제는 매년 2월 초 2주간 계속되는데, 남미의 3대 축제의 하나로 꼽힐 만큼 규모도 크고 그 화려함이 대단해서 푸노 주민들과 주변 안데스 사람들은 물론이고, 세계 여러나라의 관광객까지 모여들어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이 축제는 전야제, 길거리 퍼레이드, 경기장 경연 대회, 그리고 하이라이트인 깐델라리아 성모상 퍼레이드로 나뉘어진다. 전야제와 길거리 퍼레이드는 축제 기간동안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계속된다. 특히 마지막 전날 낮엔 우승팀을 가리기 위한 경연 대회가 성대하게 열리며, 그날 밤은 밤새 퍼레이드가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사람들이 성모상을 안고 퍼레이드를 하는 축제로 마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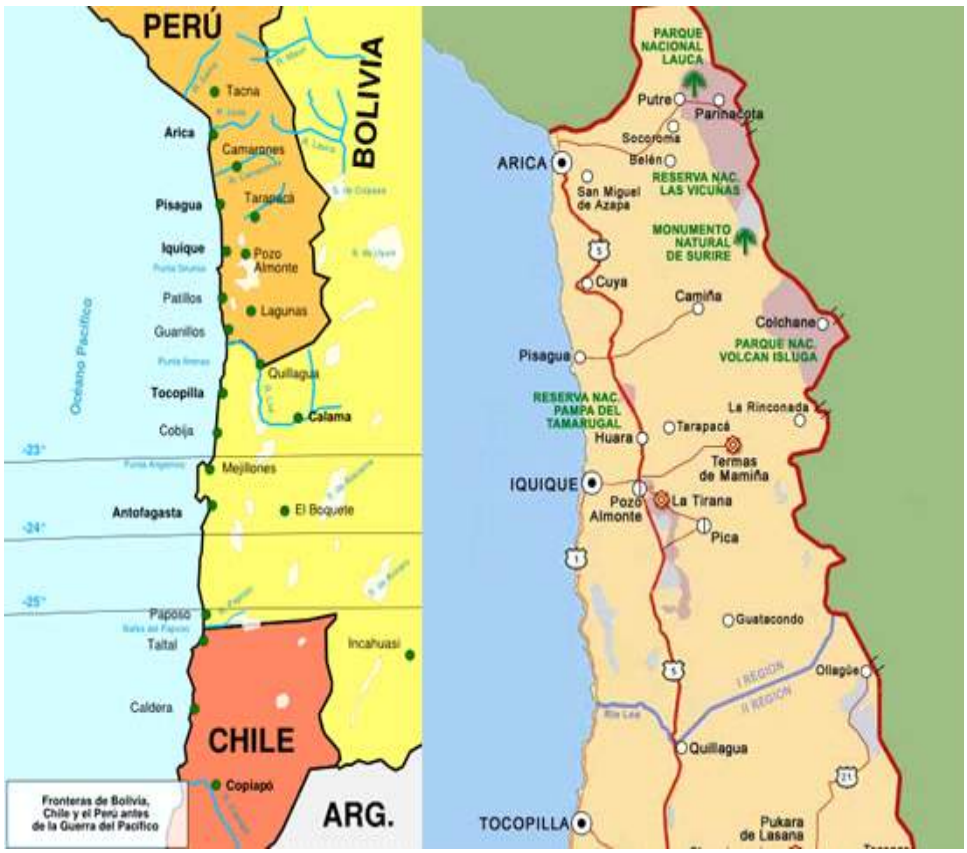
Ⅳ. 라 띠라나(La tirana) 축제 : 칠레

라 띠라나(La Tirana) 축제는 매년 7월 16일 칠레 따라빠까(Tarapacá) 지역의 조그만 마을 라 띠라나에서 열리는 축제로 칠레에서 가장 큰 종교 축제이며, 가톨릭의 까르멜 성모를 추앙하는 행사이다. 축제 기간(7월 12일-7월 18일)이면 이십 만명에서 이십 오 만명의 신자들과 관광객이 마을을 찾고, 신자들은 음악과 춤, 공물을 통해 까르멜 성모에게 신심을 바친다.

이 축제의 기원이 되었던 것은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 153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페루의 정복자였던 디에고 데 알마그로가 쿠스코에서 남쪽으로 정복 사업을 나섰을 때, 만 명의 원주민을 동원했는데 인질로서 사제 우이악 우마(Huillac Huma)과 그의 딸 뉴스따(Ñusta)를 데려갔다. 삐까(Pica) 근처에 왔을 때 많은 원주민들이 따마루고 나무 숲으로 도망쳐서 숨어들었고, 뉴스따는 종교 의식을 거행하는 여사제 겸 군사를 거느리는 지도자가 되어 4년간 그곳을 철저하게 통치했다. 적들이 그녀를 매우 무서워하여 '따마루고 숲의 강한 여자 군주', 즉 라 띠라나(La Tirana)라고 불렀다. 이끼께의 은광에 정착한 포르투갈인 바스코 데 알메이다(Vasco de Almeida)는 어느 날 꿈에 카르멜 성모가 나와 그가 찾아 헤매던 광산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자 혼자 그 길을 찾아 나섰고, 뉴스따의 부하들에게 포로로 붙잡혔다. 뉴스따는 그를 보자 사랑에 빠졌고, 모든 가톨릭 신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규율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만들어 그의 사형을 미루고, 비밀리에 그의 연인이 된다. 그녀는 바스코를 죽이지 않

기 위해 개종시키려 했으나 그가 오히려 다음 생에도 두 사람의 사랑이 영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녀가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설득해 그녀는 비밀리에 세례를 받았고, 그 순간 자신이 거느리고 있던 잉카의 군인들에게 발각되어 둘은 죽음을 맞이했다. 얼마 후 선교사인 프라이 안토니오 론돈(Antonio Rondón)이 따마루갈 숲의 빈 터에서 십자가를 발견했고, 두 남녀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 그곳에 예배당을 지었으며, 이것이 라 띠라나 마을과 라 띠라나의 성모 숭배의 기원이 되었다.

현재의 모습으로 자리 잡기까지 3가지 중요한 배경이 있다. 첫 번째는 페루와 볼리비아의 초석 광부들이다. 현재 칠레의 북쪽 1지역 따라빠까는 원래 페루의 영토였다가 초석 체취의 이권을 두고 칠레가 페루, 볼리비아 연합군과 치른 태평양 전쟁(1879-1884) 이후 칠레의 영토로 편입되었다. 19세기 중반 초석 붐으로 인해 페루, 볼리비아 노동자들이 초석 광산으로 유입되었고, 그들은 원래 은광과 구리 광산에서 일하던 아이마라 원주민들이었다. 이 아이마라 원주민 광부들은 따라빠까에서 축제를 꾸리기 시작함으로써 현재 라 띠라나 축제의 원형을 제공했다. 태평양 전쟁 이후에는 세 나라의 미묘한 대립에 따라 국적 별로 다양한 날짜에 축제가 치러졌는데, 볼리비아 사람들은 8월 6일, 페루 사람들은 7월 28일. 칠레 사람들은 7월 16일에 치렀다.



[그림1-5] 태평양 전쟁 이전 3국의 영토(좌)와 현재 칠레 북부(우)

두 번째는 칠레 축제로서 일원화되는 과정으로 태평양 전쟁 이후 1883년 안꼰 조약(Tratado de Ancón)으로 칠레는 현재 1, 2 지역에 해당하는 북부 지역의 영토를 획득했고, 칠레는 1지역에 남아 있는 페루의 영향을 지우고 칠레화 해나갔다. 이 작업은 1911년 칠레 독립 100주년 되는 해를 전후로 특히 강하게 이루어졌다. 이 때 가톨릭 교회는 새로 획득한 영토를 칠레화하는 주요한 통로 중 하나였다. 1910년 2월에는 페루의 국가 정체성이나 문화적 뿌리를 강조하는 페루 사제들을 추방했고, 라스 뻬냐스 성모(La Virgen de las Peñas)를 숭배하는 것을 금지하며 대신 라 띠라나 축제에서 칠레와 칠레 군대의 수호자인 카르멜 성모를 기리는 것으로 대체했다. 또한, 칠레 기원의 춤인 치노 춤을 추는 신자단이 성당 안으로 들어가서 성모상을 꺼낼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됨으로써 페루와 볼리비아의 신자단은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그림 1-6] 1905년 라 띠라나 축제에 참여한 볼리비아 신자단

교회 당국은 1917년부터 축제의 춤들을 공식적인 가톨릭 제식 안으로 편입시켰고, 1933년에는 이끼께의 아리까 광장에 카르멜 성모 교회가 세워져 사막에서 치르던 축제는 이끼께로 옮겨졌다. 이것이 작은 '작은 띠라나 축제'(La Tirana Chica)의 기원이 되었으며, 띠라나 마을에서의 본 축제 다음 주 일요일에 행해진다.

세 번째 아이마라 원주민 여신 빠차마마 숭배이다. 라 띠라나 축제의 바탕에는 안데스 원주민들이 빠차마마(Pachamama) 여신을 숭배하는 행위가 담겨있다. 빠차마마[8]는 께추아(Quechua), 특히 아이마라(Aymara) 원주민이 숭배하던 대지의 여신으

8) 께추아어로 빠차(Pacha)는'땅'이란 뜻이고, 마마(Mama)는'어머니'라는 뜻으로, 빠차마마는 특정한 형태를 지니지도, 특정한 장소에 있지도 않으며, 샘물, 계곡, 경작지 등 도처에 있으면서 일상 속에서 사람들을 보호하고, 일 년의 수확을 관장하는 역할을 한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이교도 우상 숭배라는 명목으로 빠차마마 신앙을 금지하자 원주민들을 성모 마리아 숭배에 빠차마마를 몰래 숨기

로, 수확을 관장하기 때문에 원주민들은 주기적으로 공물을 바치고 풍성한 수확을 기리는 의식을 해왔다. 하지만 스페인 정복자들은 원주민의 토착 신앙을 금지하고, 억압했기 때문에 원주민들은 드러내놓고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들은 가톨릭의 틀을 받아들였지만, 그 안에 자신들 고유의 신앙을 유지해왔고, 처음에는 강제로 믿기 시작한 가톨릭도 수세기 동안 정착되어 가자 자발적으로 수용되어갔다. 현재에는 많은 원주민들이 가톨릭 신자인 동시에 빠차마마 신앙을 유지하고 있고 두 가지가 일정 정도 섞인 채 공존하고 있다. 라 띠라나 축제도 성모 숭배와 빠차마마 여신 숭배가 뒤섞인, 종교 혼합(sincretism)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축제의 절정을 이루는 7월 15일에서 17일까지의 일정은 대략 다음과 같다. 새벽(El alba): 15일 자정에 광장과 마을에서 폭죽이 터진다. 많은 신도들이 운집하고 밴드들이 음악을 연주하고, 7월 16일이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것을 알린다.

[그림 1-7] 15일에서 16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교회앞에 모인 신도들

여명(La aurora): 잠시 쉰 신자단들은 동이 트면 일찍 일어나 성모에게 가 그녀의 생일을 축하하는 노래를 한다. 성모 내리기: 제단에서 성모를 내린다. 성모에게 새로운 망토를 입히고, 왕관을 씌우며 성모 주변을 색색의 끈으로 장식해 온통 덮

는 형태로 두 종교를 섞는 종교혼합주의를 만들어내기 시작했고,지금까지도 안데스 원주민들은 가톨릭과 섞인 빠차마마 신앙을 유지해오고 있다. 아이마라 인들의 아나따(Anata) 축제에 이러한 종교혼합주의가 잘 드러난다. 축제는 가톨릭 꼬빠까바나의성모일인 2월 2일에 시작해서 3일간 지속된다. 이 축제는 감자, 끼누아 등 아이마라 인들이주요한 곡물을 수확하기에 앞서 대지의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허락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는다. 미사: 성당 앞에서 이끼께의 주교가 미사를 집도한다. 행렬: 오후에는 성모가 마을을 순례하고, 많은 신자들이 그 뒤를 따르며 감격에 차서 노래를 부른다. 이별: 7월 17일 날 성모상을 제자리로 가져다 놓고, 헤어짐이 시작된다. 신자들은 모든 것이 끝났고, 다시 세속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안다. 마지막으로 아쉬움을 달래듯 다음 주 일요일 이끼께에서 작은 띠라나 축제(La Tirana Chica)가 열리고, 라 띠라나 축제는 최종 마무리가 된다.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민속춤을 춘다. 중남미에서 '민속'이라는 것을 정의내리는 것이 단순하지 않은데, 순수한 원주민 전통의 것이기 보다는 원주민 전통에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중세 유럽에서 온 정복자들이 남긴 유산이 자리 잡아 두 개가 섞이며 토착화된 것이며, 시간을 두고 거기에 노예로 끌려온 아프리카 흑인, 집시, 중국 인 등의 영향도 가미되었다. 치노 춤(El Baile Chino)은 1580년 안다꼬요 성지에서 만들어 진 것으로, 라 띠라나로 가져가서 이식된 것이다. 치노, 혹은 쉬노(Chino, Shinno)는 께추아 어로 하인, 봉사자라는 뜻이며, 잉카의 귀족들이 자신들이 부리는 하인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였다. 옷은 성모와 같이 갈색으로 입으며, 전통적으로 성당 안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유일하게 허가된 춤이며, 성모상을 바깥으로 꺼내서 행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춤이다. 전통적으로 남성의 춤이지만, 현재는 여성들도 포함되어 추는 경우도 있다. 라 띠라나 축제는 아이마라 원주민의 빠차마마 숭배와 가톨릭 성모 숭배가 섞이며, 종교 혼합의 형태로서 시작되었고, 아이마라 원주민 출신 페루, 볼리비아 초석 광부들에 의해서 시작된 축제에는 따라빠까 지역이 칠레의 영토가 됨으로써 칠레의 국가 정체성과 가톨릭 종교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성이 첨가되었다. 칠레 북부는 전쟁으로 뒤늦게 획득한 영토라서 칠레 중부의 문화적·인종적 정체성과는 상당히 이질적이며, 고립되어 있는 편이었으나 최근 북쪽 지역의 문화와 축제가 미디어에 노출되고, 민속 종교성(Popular Religiosity)에 대한 관심이 대두됨으로써 칠레 민속 문화 중 유독 화려하고 다채로운 칠레 북부의 민속과 종교 축제가 좀 더 부각되고 있는 듯 보인다. 새로운 춤과 요소들이 조금씩 가미되고, 미디어를 통해 알려짐으로써 관광객도 늘어나는 등 고착되어 있지 않고 살아있는 전통으로 지속·변화해가고 있다.

[그림 1-8] 라 띠라나 축제의 악마춤

Ⅴ. 라틴아메리카의 악마춤

> 악마 춤은 18세기부터 악마의 춤이 존재해 왔고 안데스 지역 축제 때 악마의 춤을 춘다고 한다. 악마의 상징이자 저항의 상징인 띠오(Tío)상을 1년에 한번 밖으로 모셔와 악마의 춤으로서 그것을 만천하에 공개한다. 그 당시 원주민 사회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글에 의하면 “가톨릭 포교를 정복의 명분으로 삼았고 원주민 개종을 책임지겠다는 구실로 대규모 노동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미사에 원주민들을 참석 시켜야 했을 것이다.” “스페인인들이 광산 입구에 거대한 성당을 지어 놓고 원주민의 영토마저 정복 했노라고 만족해하고 있을 때 원주민들은 그들만의 신을 창조하는 위대한 저항을 시작했을 것이다.”고 한다(우석균 2005, 79).

악마의 춤 유래에는 2가지가 견해가 있다. 앞서 말한 스페인에서 건너 온 성찬 신비극(Auto sacramental)이 아이마라 원주민 문화와 섞이면서 형성된 것, 나머지 하나는 광산도시 오루로 광부들이 스페인군의 거짓된 포교에 대한 반항의 행위로 만들어졌다는 견해이다. 이 악마 춤은 여러 악마들이 선을 상징하는 성 미카일 천사와 싸우는 것을 형상화한다. 악마는 인간을 상징하는 한 여자를 유혹하려 하지만, 성 미카엘이 개입하여 그들을 붙잡는다. 악의 우두머리는 루스벨이며, 악의 편에는 부차적인 인물들이 나온다. 마지막에는 위엄과 힘을 갖춘 성 미카엘이 한 젊은 여자, 즉 성모로 바뀌고 악이 패배한 다음 악마들과 그들의 부인들은 성모를 추앙하기 시작한다. 악마의 춤은 볼리비아 오루로 축제, 페루의 뿌노 축제, 칠레의 라 띠라나 축제 등 아이마라 원주민 문화가 바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곳에서 전승, 유지되고 있다.

그렇다면 아이마라 족들로부터 악마의 춤이 시작된 것이 분명하다. 앞에서 말했듯이 디아블라다(Diablada)는 스페인에서 온 성찬 신비극(auto sacramental)이 아이마라 원주민 문화와 섞이면서 형성된 것이다. 아이마라(Aymara) 족은 남아메리카 안데스 산맥의 남부 고지대, 현재의 페루, 볼리비아의 티티카카호 주변에서 포포호에 걸친 지역에 사는 원주민이다. 고대부터 볼리비아 남부, 칠레 북부, 페루 남부지역 일부에서 사용되던 아이마라어를 쓰고 있다. 현재 아르헨티나 북서부에서도 매우 소수의 아이마라 인들이 있어 그들은 네 개의 나라에 흩어져 있는 셈이 된다. 더 정확한 수치는 볼리비아에 백 삼십만명, 페루에 사십 만명, 칠레에 오 만명 정도이다. 이렇게 아이마라 족이 흩어지게 된 것은 19세기초 남아메리카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며 공화국이 될 때 원주민 공동체나 그 정체성을 고려해서 국경이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태평양 전쟁(1879-1884)으로 인해서 볼리비아가 칠레에 영토를 잃자 그 곳의 아이마라 인들은 볼리비아 인에서 칠레 인으로 국적이 바뀌기도 했다. 아이마라 족은 토양이 거칠고 기후가 험한 지역에서 주로 농경과 목축을 하면서 살고 있으며, 거친 초지에서 라마와 알파카 목축을 한다. 주요 경작물로 감자, 옥수수 등을 재배한다. 잉카족에게 점령되기 전까지는 코야족과 루파카 족의 국가를 비롯한 수많은 독립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다. 1430년경 잉카의 황제 비라코차 잉카가 제국의 수도인 쿠스코의 남쪽지역을 정복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아이마라족 영토는 결국 잉카 제국에 정복

되었으나, 이에 대해 아이마라족은 지속적인 항쟁을 전개했다. 1535년의 스페인 정복 이후 금과 인디언 노동력을 손에 넣으려는 세력들이 몰려들었으며, 도미니쿠스회와 예수회의 선교사업도 뒤이어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아이마라 족은 식민통치를 당했다. 여기서 아이마라 족들이 스페인에서 건너온 성찬 신비극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성찬신비극이란 16세기 스페인에서 널리 창작되었고 무대에 올려졌던 종교극을 일컫는다. 16-17세기의 성극은 단순히 예수의 삶과 수난 혹은 성서 이야기를 보여줌으로써 무지한 백성들에게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려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 (김선욱 2005, 113-114)

가톨릭은 '인꿀뚜라시오(Inculturatio)'라 하여 특정 민족의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맥락 안에서 가톨릭의 교리와 신앙생활이 뿌리내리도록 하는 토착화를 중요한 원리로 삼고 있다[9]. 하지만 이런 토착화는 말씀에 근거한 기준 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타문화권에서 가톨릭의 생존과 교세 확장을 위한 선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토착문화와의 무비판적인 융합을 허용하는 결과를 낳는다.

'똘레란시아(Tolerantia)'는 타 종교에 대한 상대주의적 입장인 포용주의 세계관을 대변한다. 타종교에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음을 인정하는 가톨릭은 '이들 종교에서 발견되는 옳고 거룩한 것은 아무것도 배척하지 않는다. 그들의 생활양식과 행동방식뿐만 아니라, 그 계율과 교리도 진심으로 존중한다. 그것이 비록 가톨릭교에서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과는 여러가지로 다르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진리의 빛을 반영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고 선언한다[10]. 가톨릭의 개방성은 가톨릭을 거부하게 만들었던 인디오들의 다신교적인 신앙체계는 태양, 땅, 달, 뱀 등 신화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신들을 성모와 성자들의 이미지와 일치시켜 섬기도록 했다.

또 한가지 가톨릭의 중요한 세계관은 '사크로산또 유카리스띠에(De Sacrosanto Eucharistia)', 즉 성체-신비의 세계관이다. 가톨릭교에서는 성만찬 예식의 빵과 포도주에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현존하며,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까지도 그 형태 안에 내재한다고 믿는다[11]. 또한 성례전[12]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와는 상관없이 성례전 자체에 저항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신비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신비주의적인 가톨릭의 세계관은 기톨릭이 샤머니즘적인 종교와 만날 때 혼합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마민호, 2008, 517-518)

---

9) 윤춘식, 「로마 가톨릭교회 세계관 이해와 중남미 선교전략」, (서울 : 쿰란출판사, 2008), pp. 115-120에서 인용하였다.
10) 비그리스도교에 대한 선언' 2항에서 발췌하였다.
11) 윤춘식, 「로마 가톨릭교회 세계관 이해와 중남미 선교전략」, (서울 : 쿰란출판사, 2008), pp. 125-127에서 인용하였다.
12) 가톨릭에서는 '성사'라고 하며 세례, 성체성사, 견진예식, 고해예식, 서품예식, 혼인예식, 종부성사가 있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들여온 새로운 종교에 아이마라 족은 전통 종교과 천주교가 혼란스럽게 공존하는 상황에 놓였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사회나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되듯이 안데스 종교와 천주교가 혼합되는 양상을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원주민들은 예수나 천주교 신은 원주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로 판단했고, 결국에는 '악마숭배' 라는 역설적인 현상까지 낳는다. 이것들을 통해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천주교가 원주민 우상을 악마로 간주하자 원주민이 악마를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던 사실이라는 것이다(Flores Galindo 1994, 78).

두 번째. 1492년 스페인은 신대륙을 발견하게 된다. 그 결과는 대규모의 원주민 착취와 학살로 이어졌다. 원주민은 정복자에게 지배와 강제에 적응해야만 했고, 정복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신대륙의 정복과 식민은 스페인에게 어마어마한 금과 은을 가져다 주었다. 그것은 곧 스페인의 위상이기도 했다. 노예화 된 원주민은 광산과 엔꼬미엔다에서 비인간적인 조건 하에서 강제노동으로 사망했다. 김달관(2013, 31-33)에 따르면 스페인은 신대륙의 원주민 노동력을 통제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강제노동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발견과 동시에 끄리스또발 꼴론(Cristóbal Colón)은 엔꼬미엔다라는 원주민 강제노동 조직을 도입했다. 엔꼬미엔다는 노예제와 비교할 때, 엔꼬미엔다가 상대적으로 노에제보다 수익이 적은 노동조직 방식인데, 스페인 왕실은 왜 노예제 대신에 엔꼬미엔다 제도를 도입했을까? 그것은 엔꼬미엔다가 노예제보다 스페인 왕실의 위협을 축소시켰기 때문이었다.[13] 게다가 엔꼬미엔다는 다른 노동조직 형태가 갖지 못한 장점이 있었는데 첫째, 스페인 왕실은 저비용으로 스페인 제국을 방어하며 확대할 수 있었고 둘째, 천주교를 전파하기를 원했으며 셋째, 식민지로부터 부(富)를 형성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에 스페인 왕실은 노예제보다 엔꼬미엔다를 선호했다. 왜냐하면 엔꼬미엔다의 상속, 거래, 재배치 제한은 스페인 왕실의 안위를 증가시켰고 이념적 필요를 보다 잘 충족시켰기 때문이다(Yeager 1995, 846-857).[14]

---

13) 엔꼬미엔다와 노예제를 비교했을 때 엔꼬미엔다가 상대적으로 수익이 떨어졌는데, 그것은 첫째, 엔꼬미엔다의 상속제한으로 인해 유산을 물려줄 동기가 부재했기 때문에 원주민 노동력의 빠른 마모를 유발시켰다. 이것은 높은 비율로 원주민을 감소시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원주민의 노동성과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원주민 노동의 거래, 재배치 제한은 제한된 지역에서 원주민 노동력 사용을 강제하여, 멕시코와 페루 은광지역에서처럼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없었다. 셋째, 다른 스페인인과 거래와 임대불능은 평균비용으로 인해 규모의 경제를 축소시켰다. 엔꼬멘데로는 원주민 노동력 규모를 조정하여 최적화 할 수 없었다(Yeager 1995, 843)

14) 상속제한은 3가지 방식으로 스페인 왕실의 통치를 강화했다. 첫째, 상속제한은 한 가족이 획득할 수 있는 부를 심각하게 축소시켰다. 2세대에 걸쳐 재산을 공정하게 모은 엔꼬멘도로도 원주민 노동 통제권이 3세대에서 상실되었다. 둘째, 스페인 왕실은 엔꼬미엔다를 보다 쉽게 몰수할 수 있었다. 정복자에게 주어진 재산권으로서 엔꼬미엔다에 항의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스페인 왕실에 제공했다. 스페인 왕실은 비협조적인 엔꼬멘데로의 엔꼬미엔다를 자주 몰수했다. 이처럼 엔꼬미엔다 몰수는 이익 극대화 방식이 아니라 스페인 왕실의 안위를 확보하려는 방식이었다. 거래제한은 이사벨 여왕이 원주민 노예 논쟁과 관련하여 신학자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1503년 신대륙의 스페인 관료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원주민은 자유민이지만 노예는 아니라고 규정을 내렸다. 그러나 원주민이 건물을 건설하고, 광산에서 광석을 채굴하며, 밭을 경작하고, 식량을 생산하는데 원주민 노동력을 강제하라고 명령했다. 강제노동자의 거래제한은 원주민 강제노동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스페인에게 허용하면서, 원주민이 노예가 되는 것은 피하도록 했다. 이에 갈수록 원주민에 대한 식민당국의 억압과 착취가 증가했고, 다른 한편으로 그것을 피하려는 원주민의 노력이 증가했다.

엔꼬미엔다는 신대륙 발견과 정복의 성과에 따라 정복자, 스페인 왕실 공로자, 도시 창설자 등에게 양도된 권리로서 광대한 토지와 그 토지에 속한 원주민을 수여했다(Laura 2001, 24). 그것은 원주민의 보호와 천주교 교육을 실행하라는 의미에서 스페인 왕실이 엔꼬미엔다 권리의 주체인 엔토멘데로(Encomendero)에게 원주민을 위임(Encomienda)한 것이고, 이에 엔꼬멘데로는 원주민의 보호와 천주교 교육에 대한 대가로 농업, 목축업, 광업 등의 분야에서 원주민의 노동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초기에 엔꼬미엔다는 1세대에 제한된 권리였지만, 이후에 엔꼬멘데로와 그의 후손이 2-3세대에 걸친 권리를 요구했다(Acosta 1959, 161).

스페인으로부터 라틴아메리카의 식민지화는 원주민들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다. 볼리비아 오루로 지역 또한 1606년에 은광이 발견되었다. 그 당시 광부들의 노동조건은 참혹했다. 월요일에 탄광에 들어가면 일요일이 되어서야 나올 수 있었다. 일요일이나마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스페인인들이 포교를 하기 위함이었는데 이는 스페인이 중남미를 정복하면서 명분으로 삼은 것이 포교였고 그로 인해서 교황에게서 신대륙 경영권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광산에 들어가면 띠오라고 부르는 악마상이 있다. 띠오는 스페인어로 삼촌을 뜻한다. 광부들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띠오에 술로 눈을 씻어주거나 담배를 물려주거나 하는 행위를 한다. 띠오는 악마이다. 광부들은 탄광에 들어가기 전에 성당을 지나면서 경건하게 예수와 마리아에게 십자가를 긋지만 아래에서는 스페인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탄을 모시고 있는 것이다. 처절한 노동의 일상 때문에 광부와 관계가 많은 안데스 지역 축제들에서 악마의 춤이 두드러진 것은 아니였을까.

Ⅵ. 결론

라틴 아메리카인들은 유럽인들의 정복과 함께 유럽인들이 만들어낸 속박에서 독립전쟁과 혁명 등 온 몸으로 역사를 만들며 지금까지도 그들만의 문화와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길을 찾아 왔다. 그 중에서도 안데스 지역에서 널리 행해지고 추는 디아블라다라는 악마춤이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 새로운 세계를 지향하며 식민지 정복으로부터 자신들의 문화를 지켜내기 위한 아이마라 원주민들의 분노가 나타난다. 본문에 나오는 축제의 핵심인 오루로 축제는 동정녀 소까본을 기리는 축제였다. '소까본'은 '갱도'를 뜻한다. 그러니 소까본이 카톨릭의 성모이면서 광부들의 수호성모임을 짐작할 수 있다. 오루로 축제를 수놓은 수많은 춤 중에서 디아블라다라고 부르는 악마의 춤은 백미로 꼽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띠오와 관련이 있다. "띠오(Tio)"라 불리는 커다란 악마상은 모든 광부들이 일을 시작하기 전, 이 악마에게 우선 경배와 함께 제사를 드린다. "띠오"는 이 광산을 지배하는 악마의 신으로서 붉고 날카로운 눈과 머리에는 양쪽으로 커다란 뿔이 돋아 있으며, 이 광산에서 일하는 모

든 광부들의 생명과 은의 생산량을 지배하는 악마로 여겨진다.

모든 광부들은 갱의 곳곳에 이 “띠오”라는 악마의 형상이나 그림을 그려놓고, 틈이 날 때마다 수시로 그 형상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의 안전과 무사함 그리고 많은 양의 은 생산을 기원하기도하고 축제에서는 스페인들을 무섭게 할 수 있는 상징들로 악마를 형상화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안데스 동쪽 사면에 위치한 아마존 종족들에 대한 기억도 남아 있다. 잉카인들의 야만인이라고 멸시하면서도 내심 두려워했던 아마존 종족에 대한 기억이 대대로 전해지다가 오루로 축제의 레퍼토리 중 하나로 정착된 것이다.

라 띠라나 축제의 기원이 된 뉴스따와 바스코의 이야기는 실제 인물과 사건에 바탕을 두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민속으로서 구전되어 왔기 때문에 이야기의 골격은 거의 비슷하더라도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다른 버전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뉴스따가 바스코의 충고에 따라 개종하는 것은 아메리카 대륙이 유럽에 의해 식민화되고 가톨릭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과 흡사하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고 종교와 문화를 이식하러 온 유럽의 남자에게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았고, 거의 대부분 남자였던 스페인 정복자들 집단이 원주민 여성과 결합했던 것은 필연적이었다.

특히 3개의 축제 중 라 띠라나 축제는 아이마라 원주민의 빠차마마 숭배와 가톨릭 성모 숭배가 섞이며, 종교 혼합의 형태로서 시작되었고, 아이마라 원주민 출신 페루, 볼리비아 초석 광부들에 의해서 시작된 축제에는 따라빠까 지역이 칠레의 영토가 됨으로써 칠레의 국가 정체성과 가톨릭 종교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성이 첨가되었다. 칠레 북부는 전쟁으로 뒤늦게 획득한 영토라서 칠레 중부의 문화적·인종적 정체성과는 상당히 이질적이며, 고립되어 있는 편이었으나 최근 북쪽 지역의 문화와 축제가 미디어에 노출되고, 민속 종교성(Popular Religiosity)에 대한 관심이 대두됨으로써 칠레 민속 문화 중 유독 화려하고 다채로운 칠레 북부의 민속과 종교 축제가 좀 더 부각되고 있는 듯 보인다. 새로운 춤과 요소들이 조금씩 가미되고, 미디어를 통해 알려짐으로써 관광객도 늘어나는 등 고착되어 있지 않고 살아있는 전통으로 지속·변화해가고 있다.

안데스 지역의 악마춤을 통해 스페인으로부터 원주민들 자신이 겪어야 했던 고통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 겉으로 보기엔 몰랐지만 악마 춤을 최대한 무섭게 분장하고 행동도 크게 함으로써 스페인인들을 겁주게 만들려는 의미도 알 수 있었다. 그 당시 ‘악마 숭배’라는 현상이 잘 와닿지는 않았지만 천주교가 원주민 우상을 악마로 간주하자 원주민들이 악마를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사실(Flores Galindo 1994, 78)이 무척이나 놀라웠다. 유럽 문화에 대한 반감에서 출발해 전통적인 것에 애착을 보이는 현상이 악마숭배의 형태로 발전한 것이다. 디아블라다(Diablada)라는 악마 춤은 동시에 식민시대 지하 막장으로 내몰린 광부들을 묵묵히 비쳐주던 촛불, 광부들의 유일한 동반자(tío)가 축제를 통해 지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환영하는 촛불이다. 오늘도 그 촛불은 축축하고 어둡고 기나긴 갱도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안데스 주민들을 비쳐주고 있다.

참고문헌

김달관(2013)「식민시대 볼리비아 사회」서울대학교

강성식(2008),「잉카리신화, 안데스의염원」, 라틴아메리카연구, Vol. 21, No. 4, pp. 160-164.

강정원(2010)『우리는 빠창게로!』미국 플로리다 인류대학

마민호(2008)「가톨릭의 혼합주의 분석과 선교전략」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이영미(2009)「푸노의 향기, 푸노의 속살」국립알티플라노대학교

우석균(2005),「안데스유토피아」, 이베로아메리카, Vol. 7, No. 2, pp. 1-30

우석균(2008),『잉카In 안데스』, 랜덤하우스

우석균(2005)『바람의노래, 혁명의 노래』해나무

엘리아데(1985)『신화와현실』, 이은봉옮김,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주종택(2003)「라틴 아메리카의 사회변화와 축제 : 겔라겟사와 카니발의 사례」131-132 순천향대

정승희(2009)『안데스의 원주민 문화』수르출판사 Vol. 57. No. 5. pp. 64-68

Acosta, Hilarión(1959), “La encomienday la mita a través de la historiografía moderna,” Revista Municipal deArtey Letras, Khana, No. 33-34, La Paz, pp. 69-80.

Brown, Jonathan C.(2005), Latin America: A Social History of the Colonial Period, 2nd ed., U.S.A.: Wadsworth.

Flores Galindo, Alberto(1994), Buscando un Inca: Identidad y utopía en los Andes Lima: Editorial Horizonte.

Gomara, López de(1977), Historia general de las Indias, Lima: Editorial Universo.

Meneses, Gregorina(1992), Tradición oral en el imperio de los Incas: historia, religión, teatro, Costarica: Varitec.

Laura, María(2008), “Encomienda, trabajo y servidumbre indígena en Corrientes, Siglo XVII-XVIII,” Tesis de Maestría, Universidad Internacional de Andalucía.

Ortiz Rescaniere, Alejandro(1973), De Adanvva a Inkarrí: una visión indÍgena del Perú, Lima: Retablo de Papel.

Ossio A. juna M.(ed.)(1973), Ideologíq mesiaánica del mundo andino, 2a ed., Lima: Ignacio Prado pastor.

Restall, Matthew(2004), Seven Myths of the Spanish Conquest, New York: Oxford Universtiy Press.

Thérèse Bouysse-Cassagne, "Las minas del centro-sur andino, los cultos prehispánicos y los cultos cristianos", 2005, pp. 450-455

Urbano, Enrique(comp.)(1993), Mito y simbolismo en los andes: La figura y la palabra, Cusco: Centro de Estudios Regionales Andinos "Bartolmé de las Casas.

Vázauez, Juan Adolfo(1986), "The Reconstruction of the Myth of Inkarri," Richard N. Luxton(trans.) Latin American Indian Literatures Journal: A Reviw of American Indian Texts and Studies, Vol. 2, No. 2, pp. 92-109.

Vega, Inca Garcilaso de la(1977), Historia general del Perú, tomo III, 2a ed., Lima: Editorial Universo S.A.

Yeager, Timoth J.(1995), "Encomienda or slavery? The spanish crown's choice oflabor organization in sixteenth-century spanish America,"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Vol. 55, No. 4, pp. 842-859.

http://blog.naver.com/chen28218?Redirect=Log&logNo=70150001072 (2014, 8. 11)

http://blog.daum.net/wooskk/11879365 (2014, 8. 12)

http://getabout.hanatour.com/archives/35184(2014, 9. 14)

http://yupanqui.tistory.com (2014, 10. 21)